

# 귀농 · 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

### 익산시, 귀농인 사업 신청자격 완화... 12개 사업 다음달 7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에 대비해 귀농·귀촌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19일 시는 귀농인사업 신청자격완화와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거, 농업지원, 지역민 융합 등 12개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와 농가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

농업생산지도를 돕기 위해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 자금 이차보전 사업, 귀농인 우수창업 농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지역민들과의 용화를 돕기 위한 마을현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용자사업도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부터 예산편성과정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수렴과 실태를 반영해 사업 신청자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필수요령 사업 위주로 진행한다.

신청자격의 세대주, 농업경영체 기준

을 완화했다. 초기 영농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농업을 최초 시작할 때부터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올해 11월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예정자들에 게도 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일부사업은 정액형 사업비에서 귀농인이 영농규모 및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선택할 수 있는 변액형 사업으로 진행한다.

또한 귀농인 위주 지원을 귀촌인가 지 확대에 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창업, 농지 및 임차료,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미세먼지 저감 · 탄소중립 실천

### 군산시농기센터, 농식품부 '농촌사회 공헌' 인증 단체 선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관·단체에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리영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에 인증서를 발급해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해당 활동 실적과 성과는 서류, 현장심사 등 객관적인 사회공헌 실적평가를 통해 조직체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14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새로운 변화와 신기술을 습득해 선도 실천하며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능력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촌환경 지키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깨끗한 농촌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16년째 매년 200여톤의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자재 공동수거 사업을 펼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왔다.

매년 수거사업 수익금으로 인재양성장학금, 사회복지시설 성금품 기부, 어러웃 이웃돕기 등 사회환원사업을 추진하며 사랑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리영심 회장은 "농업인 학습단체로 전국 최초 농촌사회공헌 단체로 지정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60여 군산시 생활개선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서 생활개선회가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활동을 통한 군산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설 맞아 청년주방 나눔 '훈훈'

익산 청년공유주방 청년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전개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9일 시는 설을 맞아 익산다리로움 청년공유주방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5명을 초청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공유주방에서 영입하고 있는 '뽕' 스타, '익산제빵소', '호랑이곰' 청년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점포별 대표메뉴인 단전불고기파스타와 볶음우동, 탕수육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만들고 쿠키와 구운과자를 선물로 제공한다.

청년공유주방 운영자들은 "시에서

도움을 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지역아동들에게 희망으로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년공유주방이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다리로움 청년공유주방은 창업과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대 캠퍼스 내 인공동굴 4기 본격적 조사 시작

###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 군산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추정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시균: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인공동굴에 대한 기본 조사를 착수하며, '굴삭조사 개토제'를 개최한다.

개토제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개토제에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보직자, 문승우 전북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원, 군산시 관계자 및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토제는 동굴의 굴삭조사에 앞서 안전을 기원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사업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 인공동굴은 지난해 2월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활용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

져왔다.

이번 조사는 1년 동안 군산대학교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이야기가 있는 캠퍼스-미용역사길 조성사업비에서 조사연구비로 7400만 원이 투입된다.

군산대학교가 자리한 관여산 일원은 마한시대에서 현대까지 군산과 군산사람들의 굽직한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군산대학교는 이 유적들을 활용해 '이야기가 있는 캠퍼스-미용역사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인공동굴은 미용역사길의 중심에 있다.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에 이르는 어두운 시기 군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동굴 기본조사는 학술연구와 함께 향후 교육자원으로서의 보존과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과정이다. 지표 물리탐사를 통해 7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동굴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동굴 4기를 대상으로 굴삭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터로 사용되었으나, 거의 대부분 무너진 6호 동굴에 대한 세부 조사를 포함한다.

굴삭조사 후 안전점검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한 동굴은, 3D스캔 등 내부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임시 개폐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송학동 주민들 꽃차 소믈리에 1급 자격증 취득

익산시는 다양한 특화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송학동 주민 12명이 최근 꽃차 소믈리에(1급 1명, 3급 1명) 자격증까지 취득해 농업·화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한국꽃차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농업회사법인 '꽃차움이 주관한 송송꽃차 클래스 전문가 과정(30시간)'을 수료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향후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하게

될 '푸른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해 마을카페 음료 및 제품 개발, 식음료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된다.

센터는 기후가 좋아 4계절 식용꽃을 재배하기 좋은 익산의 지리적 조건과 건강 꽃차 음료와 티블렌딩이 젊은 층에 애호로 시장확대 분위기에 발맞춰 이 분야를 특화사업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 카페 좋은 정책상 수상

군산시는 19일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으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 공모에 선정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는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수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서로 공유·널리 알리는 취지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된 공모전이다.

시는 이전에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로 2021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에서 최우수상 수상, 2022년 베타투게더 챌린지 100선 공모 에서 20선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 이번에도 좋은 정책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명성을 재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연초부터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여 영광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교도소세트장 가족과 즐기는 전통놀이 가득

익산시는 설명절 전통 놀이를 이색관광지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즐겨보자.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는 설날 당일인 22일과 23일까지 이틀간 윷놀이, 딱지치기, 국궁, 투호, 제기차기 등 가족 전통놀이를 마련했다. 특별 이벤트로 가래떡 굽기, 달고나 만들기, 연날리기까지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전통놀이 체험은 놀이별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이벤트는 전통놀이 3종 이상 체험 후 스탬프를 받는다던 한 가지를 참여 할 수 있다.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지난 한 해 10만7천677명이 방문한 익산 대표 관광지로 MZ세대에게 최수복체험 SNS 인증샷이 인기다.

한편 교도소세트장 인근에는 합리면의 합라한옥체험마을과 성당면·용인면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어 가족여행에 '이색체험'의 즐거움을 더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